

농악

第37回 全國民俗藝術競演大會

# 호남우도농악

전라북도



◆ 期 間 : '96.10.16(水)~10.18(金)

◆ 場 所 : 경기도 성남 실내체육관

# 생성배경

## ● 생성지역

전라북도 일원중 평야부 일대

## ● 기능지도자

이복남(1946. 12. 25일생)

## ● 형성배경과 발전

우리 고장에서는 농악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매구친다”, “풍장친다”라는 말을 흔히 쓰고 있다. 옛 중국의 기록에 우리나라의 음악을 “매” 또는 “리”라고 쓰고 있어 공동체적 놀이를 함축적으로 의미하는 “굿”이라는 말과 합쳐 농악을 매굿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매굿의 기원은 아득한 상고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우리의 옛 선조들은 방울을 흔들고 북을 치고 춤을 추며 하늘에 제사를 올리고, 사냥하거나 씨뿌리고 거두어 들일 때, 마을사람들이 한데 어울려 춤을 추고 놀 때에도 팽과리, 장구, 징, 북을 치며 신명을 돋구어 이를 근거로 매굿의 기원을 제의기원설과 노동놀이기원설로 설명한다.

호남농악은 악대의 편성, 복색, 연기 등의 특색에 따라 지역적으로 우도굿과 좌도굿으로 다시 나눈다.

호남우도굿은 이리, 익산, 김제, 옥구, 부안, 정읍, 고창, 영광, 장성, 함평, 나주, 광주, 장흥, 강진, 영암, 무안 등 옛 전라우도 지역인 호남의 서부평야지역에 전승되고 있으며, 완주와 화순 등은 좌도굿 전승지였으나 요즈음 우도굿을 많이 치고 있다.

## 목 차

* 생성배경 .....	2
* 연행과정 .....	4
* 편성·출연자 .....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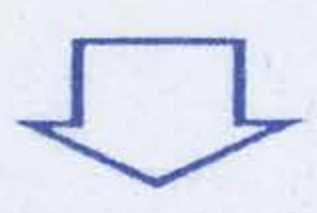
전라도의 멋과 가락

# 호남우도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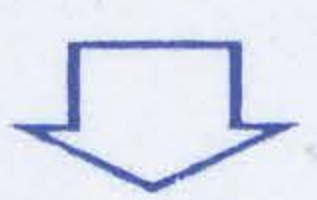


# 연행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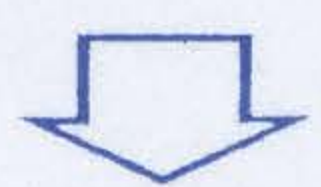
인사



길굿



오채질굿



양산도



오방진



호호굿



개인놀이

상쇠놀이

소고놀이 (12체 포함)

장고놀이 (구정놀이)

기 놀 이

인사



## 인사

쇠옷을 입고 전립을 쓴다. 쇠옷은 색동이 달린 반소매 창옷으로 흥동지기라고도 한다. 등에 흥, 청, 황의 삼색 드림을 달고 왼쪽어깨에 황색띠, 허리에 청색과 흥색띠를 맨다. 전립에는 부포상모를 단다.



## 오채질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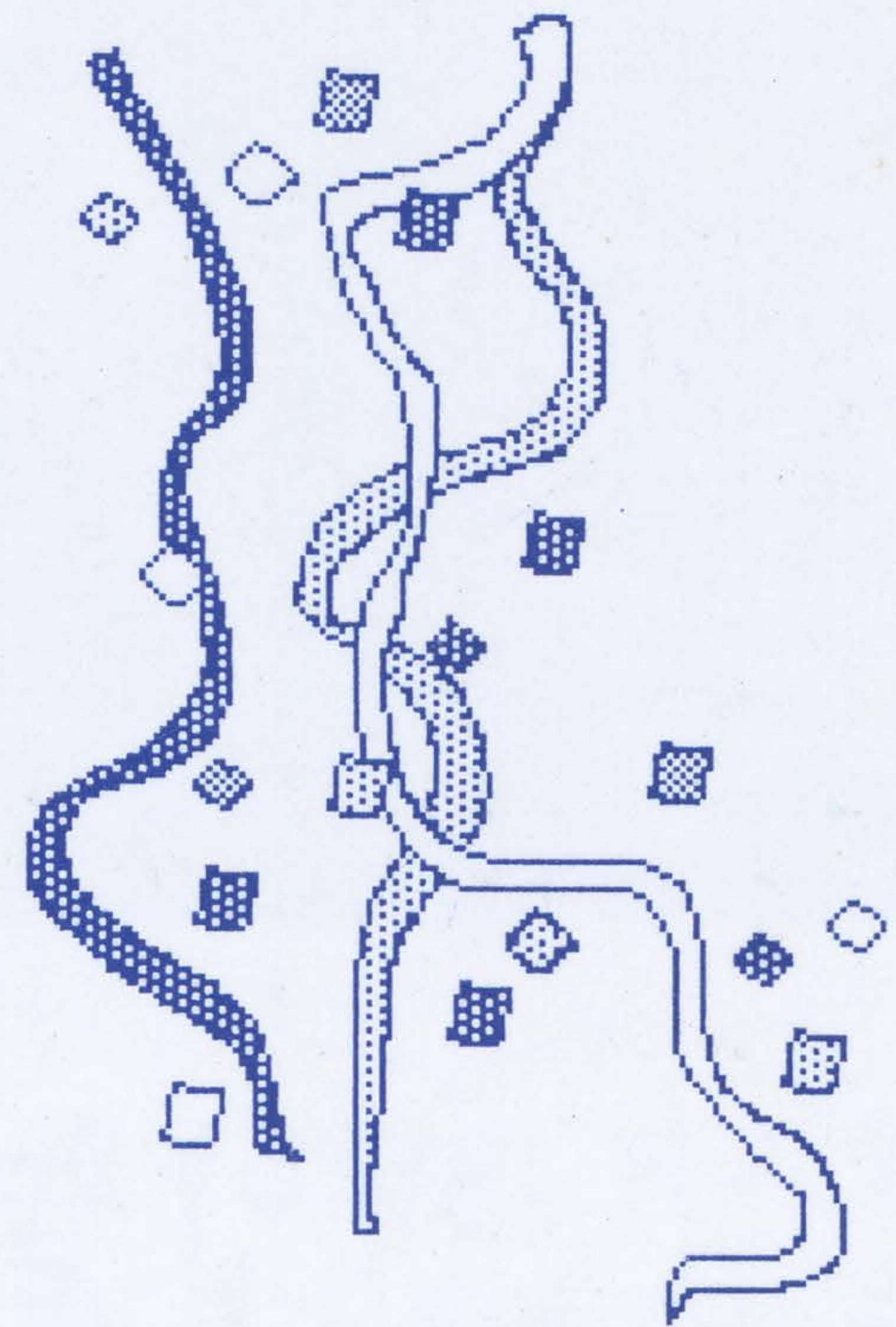
매우 빠른 2박과 3박이 혼합된 박자로 징이 다섯 점 들어가고 오른쪽으로 돌면서 치기때문에 오채질굿 또는 우질굿이라 한다.

매우 빠른 2박과 3박이 혼합된 박자로 오채질굿에 이어 왼쪽으로 돌면서 치기 때문에 좌질굿이라 한다.



## 양산도가락

3분박 3박자의 세마치 4장단으로 징은 세마치 한 장단마다 한 점 들어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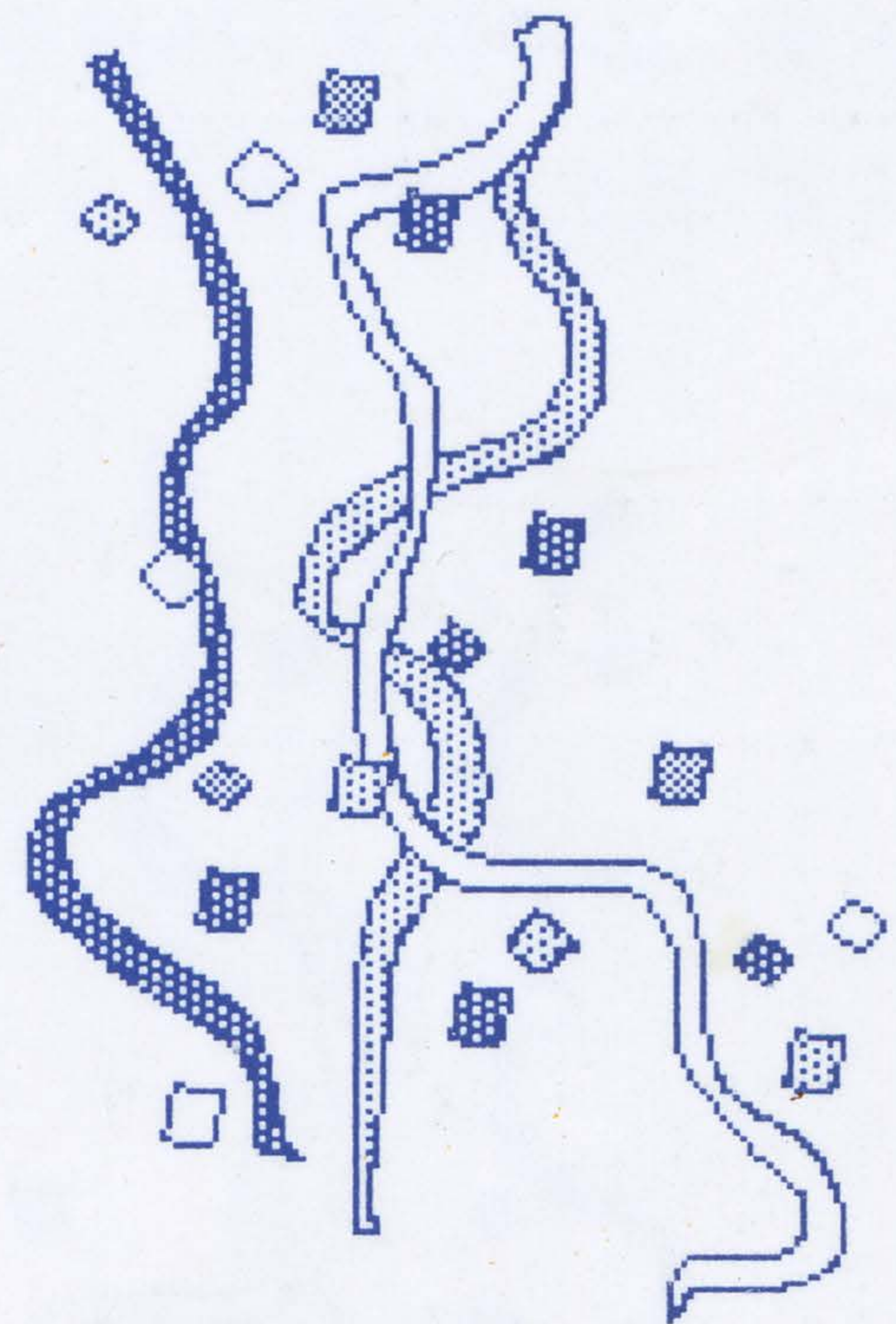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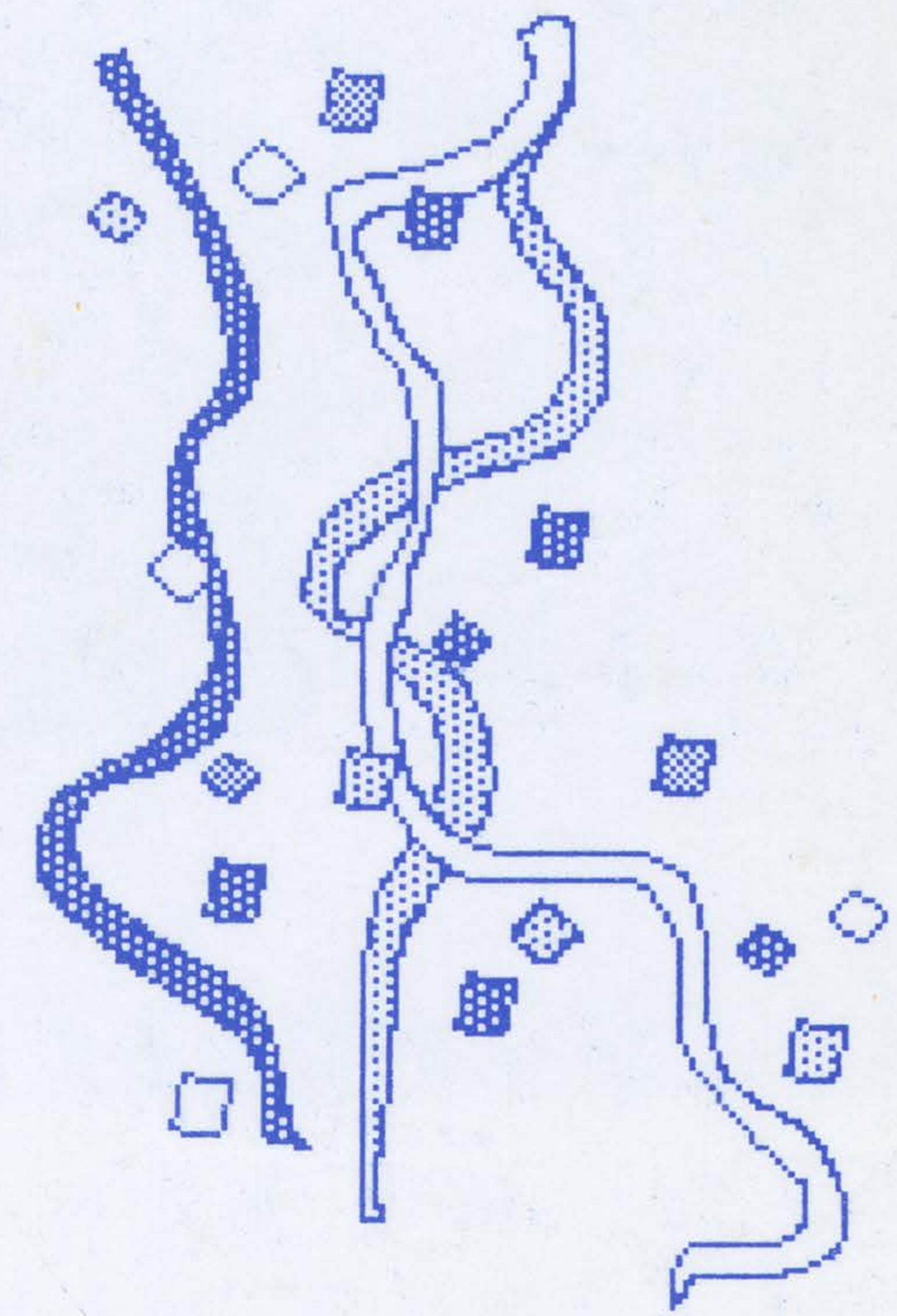
## 호호굿

판굿의 호호굿에서는 치는 가락으로 매우 빠른 2박과 3박이 혼합된 박자이며 끝에서 '호호' '허허' 구호를 붙인다.

## 오방진가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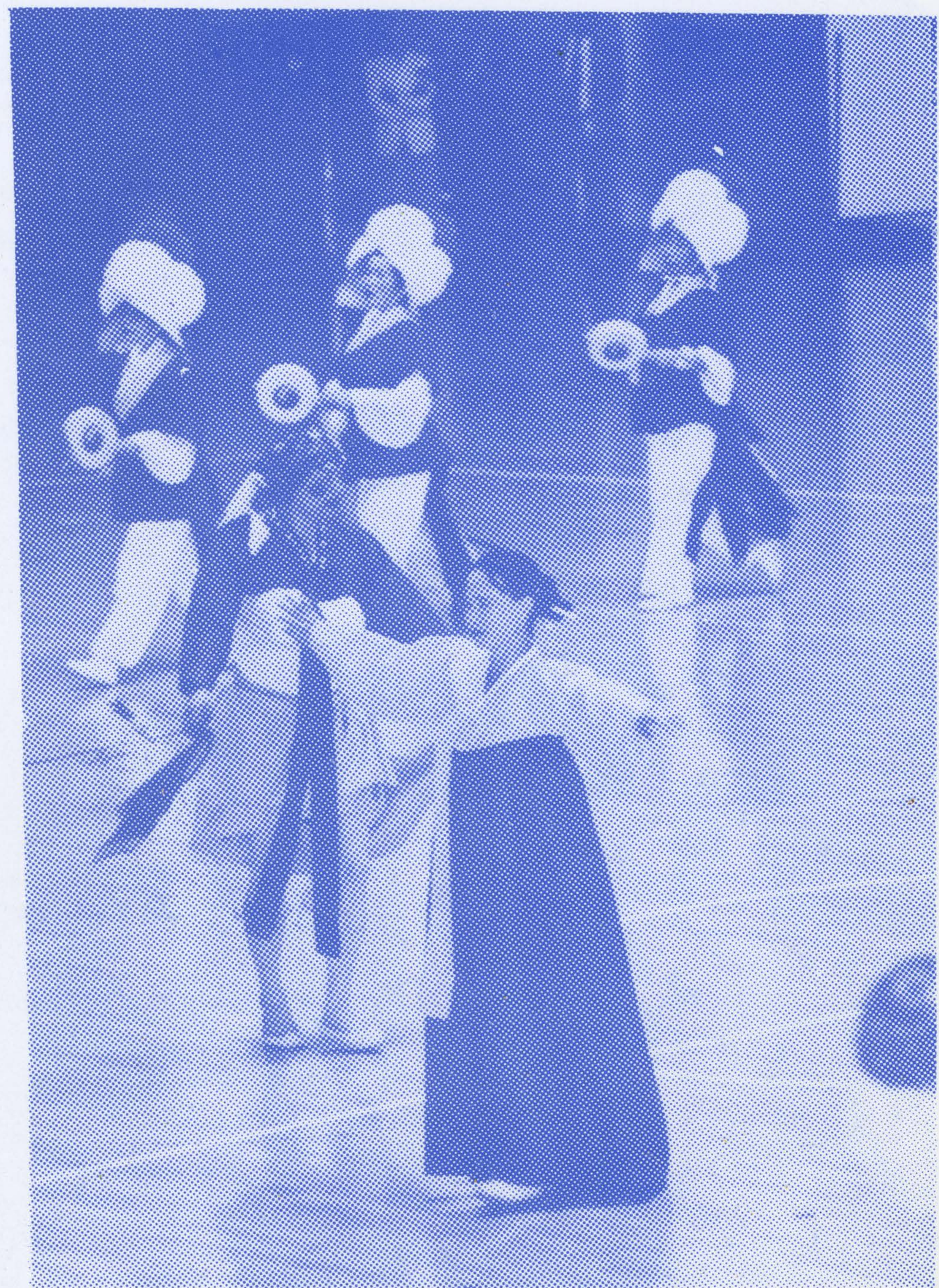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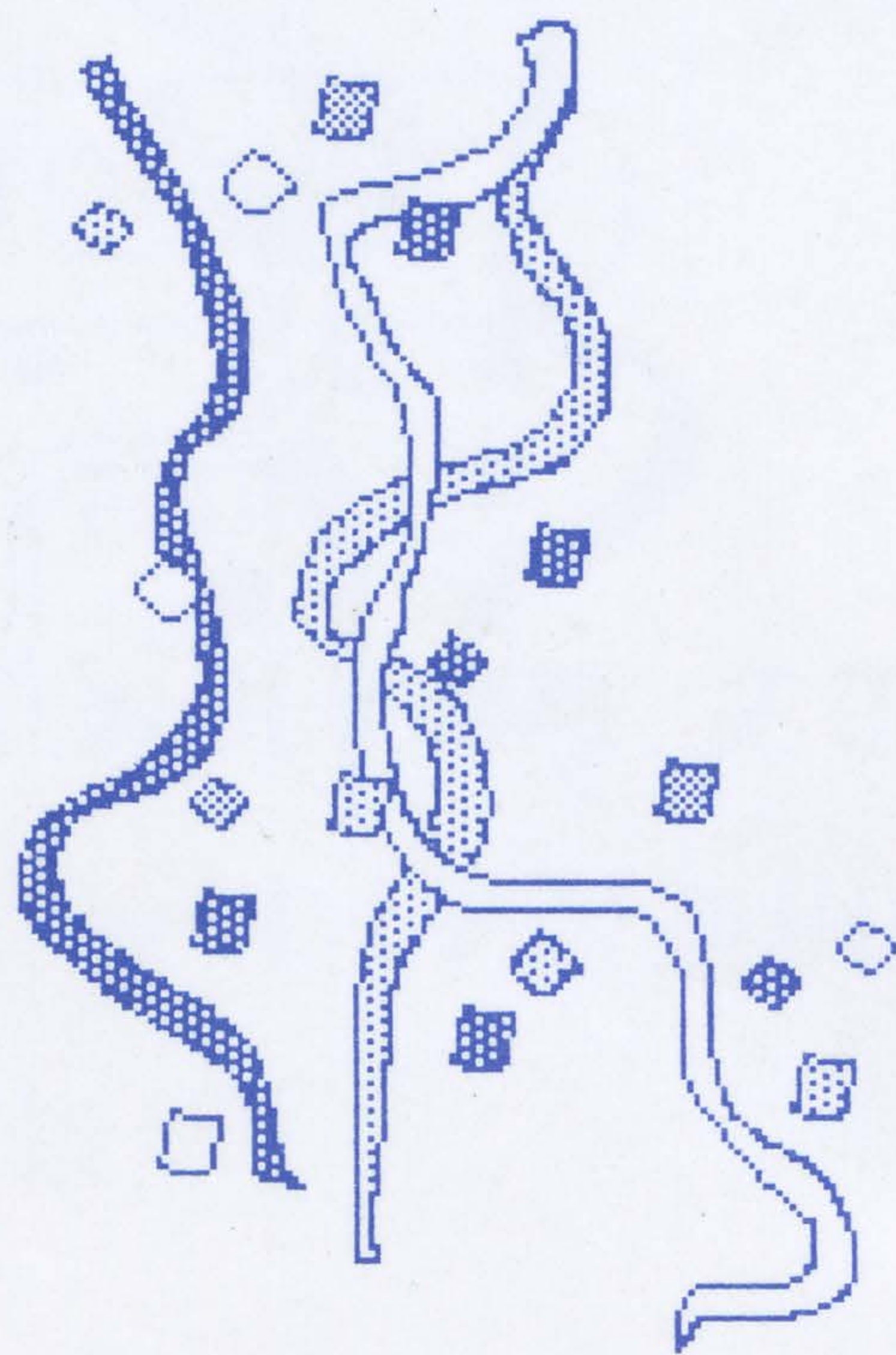
4분박 좀 빠른 4박자인 4분의 4 박자로 오방지에서 치는 가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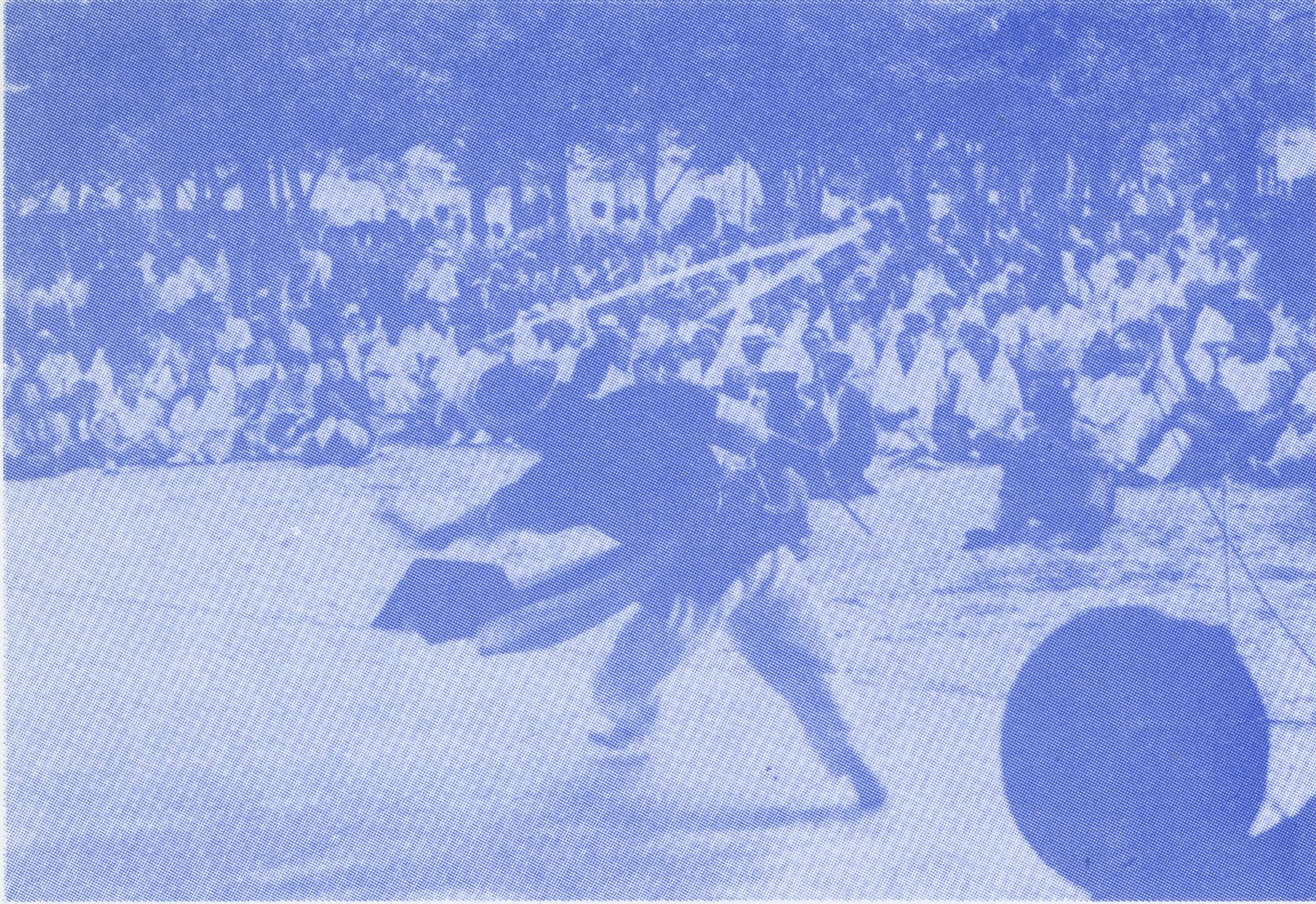




## 개인놀이 ( I )

소고놀이, 설장구놀이, 쇠꾼, 잡색  
들이 신명나게 흥을 돋우며 한바  
탕 논다.





## 개인놀이 (Ⅱ)



쇠와 징이 한조가 되고 장구와 북이 한 조가 되어 서로 마주보고 미지기로 전진후 퇴하면서 쇠가락을 장구와 북이 따라치는 품앗이 가락으로 교대 연주한다. 이때 소고는 원진무를 한다. 삼지를 치면서 원의 중심을 보고 서 잇는다. 쇠가 원의 중심으로 들어가 사방으로 돌아 사방으로 쇠를 땅에 놓아두고 춤을 추면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장구가 원의 중심으로 들어간다.



## ■ 유 래

우리나라의 전래의 농민음악을 흔히 농악이라고 부르고 있다. 농악이라는 말은 1930년대 이후에 일본학자들이 부르던 것을 해방되고 나서도 무비판적으로 농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오늘날까지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다.

그러나 이 고장에서는 농악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매구친다”, “풍장친다”라는 말을 흔히 쓰고 있다. 옛 중국의 기록에 우리나라의 음악을 “매” 또는 “리”라고 쓰고 있어 공동체적 놀이를 함축적으로 의미하는 “굿”이라는 말과 합쳐 농악을 매굿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매굿의 기원은 아득한 상고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우리의 옛 선조들은 방울을 흔들고 북을 치고 춤을 추며 하늘에 제사를 올리고, 사냥하거나 씨뿌리고 거두어 들일 때, 마을사람들이 한데 어울려 춤을 추고 놀 때에도 팽과리, 장구, 징, 북을 치며 신명을 돋구어 이를 근거로 매굿의 기원을 제의기원설과 노동놀이 기원설로 설명한다. 제의 및 노동놀이에 따라 발전한 매굿은 세월이 흐름에 따라 군악적 요소, 불교적 요소 등이 가미되면서 발전하여 널리 민간에 전승되었으며 요즈음은 전문적인 연희집단에 의해서도 발전적으로 계승되고 있다.

매굿은 음악요소, 무용요소, 연희요소가 집중적으로 강화된 종합예술로 우리나라의 전통예술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포괄적인 집단행위예술이며 가장 원초적인 악기와 가락으로 흥과 신명을 돋구는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예술이다.

## ■ 분 류

매굿은 지역에 따라 연희 형식 및 내용이 약간씩 달라 대개는 웃다리농악, 호남농악, 영남농악으로 대별한다.

웃다리농악은 안성, 평택, 여주, 이천, 용인, 김포, 화성, 양주, 광주, 개성등의 경기 지방과 천안, 청주, 충주, 음성, 괴산, 공주, 부여, 서천, 당진등의 충청도지역, 황해도 및 평안도 지역에서 전승되고 있다.

영남농악은 달성, 군위, 안동, 영천, 청도, 예천, 영덕, 마산, 진주, 밀양, 창녕, 김해, 양산, 고성 등 경상도 지역에서 전승되고 있다.

호남농악은 악대의 편성, 복색, 연기 등의 특색에 따라 지역적으로 우도굿과 좌도굿으로 다시 나눈다.

호남우도굿은 이리, 익산, 김제, 옥구, 부안, 정읍, 고창, 영광, 장성, 함평, 나주, 광주, 장흥, 강진, 영암, 무안 등 옛 전라우도 지역인 호남의 서부 평야지역에 전승되고 있으며, 완주와 화순 등은 좌도굿 전승지였으나 요즈음 우도굿을 많이 치고 있다.

호남좌도굿은 금산, 무주, 진안, 장수, 전주, 임실, 남원, 순창, 구례, 곡성, 승주 등 옛 전라 좌도 지역인 호남의 동부 산간지역에 전승되고 있다.



■ 내 용

1. 편 성 : 영기, 대포수, 쇠납, 쇠, 징, 장고, 북, 범고, 양반, 조리중, 용기, 농기, 창부, 각시, 무당, 할미, 무동

2. 순 서 : 인 사 굿  
 길 굿  
 오 채 질 굿  
 양 산 도  
 오 방 진  
 호 호 굿  
 개 인 놀 이 = 상 쇠 놀 이  
 소 고 놀 이 (12채 포함)  
 장 고 놀 이 (구정놀이)  
 기 놀 이  
 인 사 굿

3. 특 성 : 1. 가락은 약간 느린듯 하나, 리듬이 섬세하고 다채롭다. 일채, 이채, 된삼채, 풍류굿, 오채질굿, 양산도 가락, 호호굿, 오방진 가락 등이 다양하게 펼쳐지며 상쇠의 상모놀이가 다양하다.

2. 장고치는 방법과 춤추는 예태가 발달하고 범고춤의 기법이 다양하며 진법이 다양하다. 그리고 아주 섬세한 가락인 오채질굿은 호남우도 농악에만 전수되는 특이한 형태의 가락으로 호남우도 농악의 백미로 꼽힌다.

## 편성 및 출연자

### ■ 편성 및 복식

악기 : 북 4, 쇠 5, 장고 6, 징 4, 태평소 1, 채남 1, 소고 12

도구 : 용기 1, 농기 3, 오방기 5, 마당기 1

복식 : 모두 흰옷에 자주색 조끼를 입고 머리는 꼬깔을 쓴다.

### ■ 출연자 명단 (58명)

- \*새 남 : 권희덕(남. 57세)      \*태평소 : 손주길(남. 43세)
- \* 쇠 : 이춘래(남. 30세), 유인호(남. 42세), 송정덕(남. 51세)  
서영철(남. 48세), 이철호(남. 28세)
- \* 징 : 심순삼(남. 62세), 이재득(남. 46세), 임정애(여. 44세)  
이판길(남. 55세)
- \*장 고 : 이복남(남. 51세), 서문형임(여. 41세), 박만석(남. 46세)  
구양수(남. 43세), 고금곤(여. 43세), 노순례(여. 42세)
- \* 북 : 곽재섭(남. 53세), 전형이(남. 44세), 이병석(남. 46세)  
강충해(남. 37세)
- \*소 고 : 이자순(여. 46세), 라육례(여. 44세), 허향덕(여. 44세)  
김현자(여. 40세), 박복녀(여. 43세), 허순아(여. 44세)  
박미애(여. 43세), 황정임(여. 38세), 김순덕(여. 39세)  
박순금(여. 38세), 서미자(여. 32세), 박영숙(여. 47세)
- \*양 반 : 김영수(남. 52세)      \*어 사 : 신동남(여. 49세)
- \*무 동 : 김지연(여. 5세), 백승준(남. 6세)
- \*조리중 : 이수자(여. 55세)
- \*기 수 : 원종삼(남. 63세), 문재현(남. 2세)      홍준표(남. 36세)  
이병섭(남. 58세), 이우철(남. 55세), 강기선(남. 52세)  
주용식(남.    세), 박종성(남. 52세), 조현호(남. 44세)  
김진선(남. 47세)
- \*기 타 : 강순명(여. 50세), 김종섭(여. 60세), 정순자(여. 60세)  
김정임(여. 49세), 강인하(여. 57세), 윤기숙(여. 58세)  
이인숙(여. 57세), 송옥희(남. 52세), 김영숙(여. 47세)  
이예순(여. 45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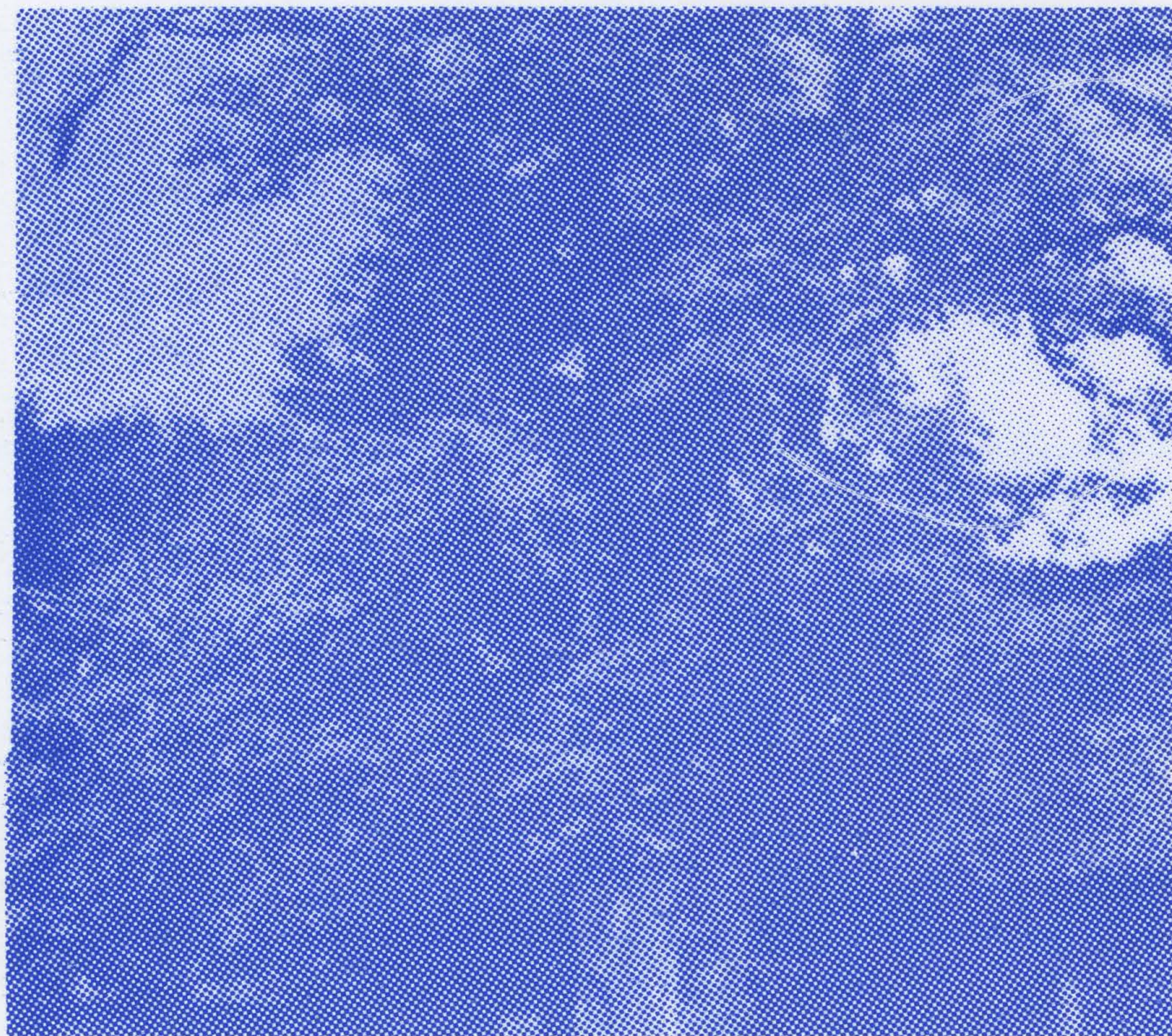
## ■ 전북의 상징



● 道鳥 : 까 치

\* 益 鳥

산림이나 농작물 해충을 포식하고 희소식을 전해준다는 믿음이 있다. 까치설날 까치설빔 까치저고리도 여기서 유래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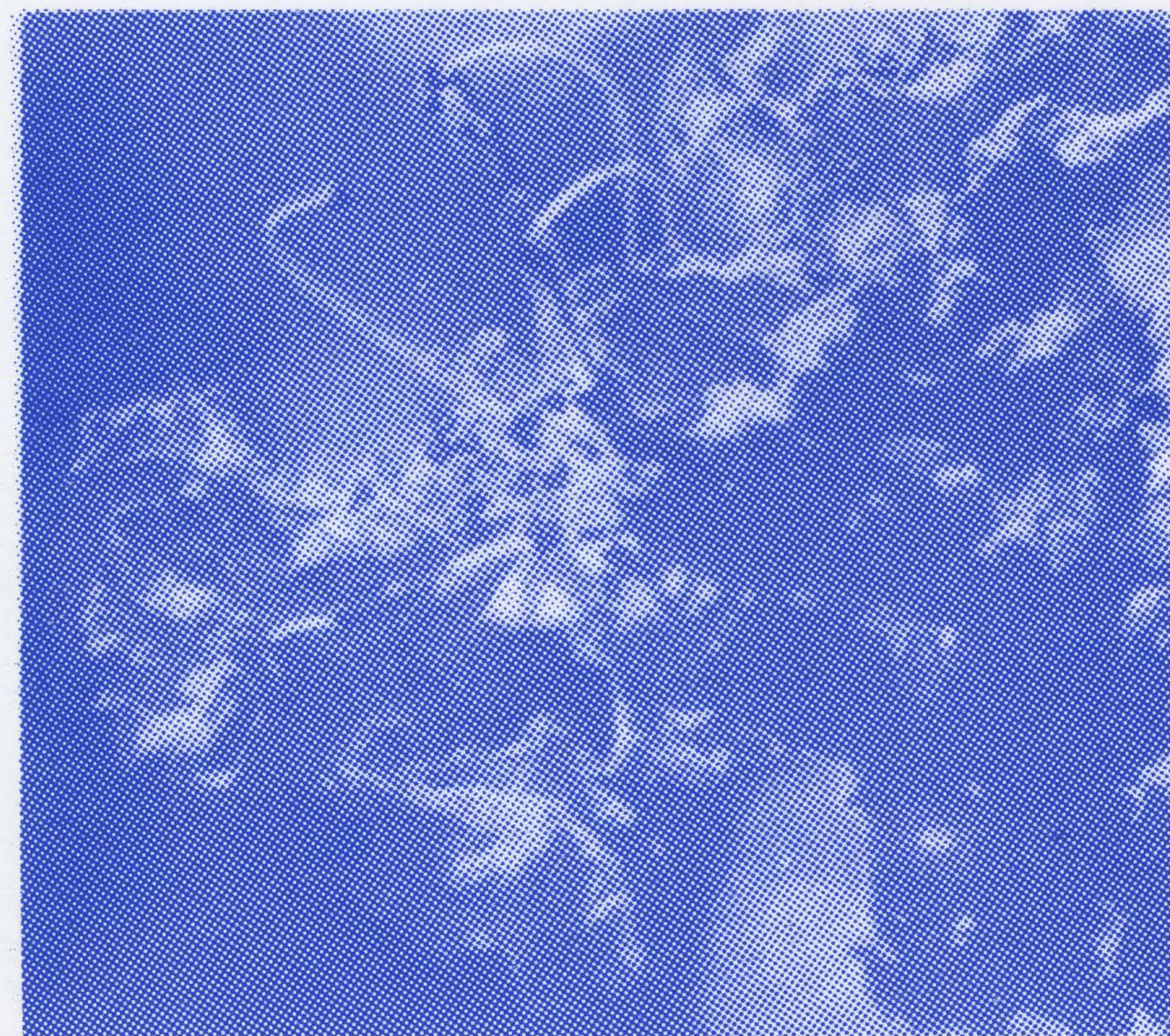
● 道木 : 은행나무

\* 學 名

높이 60m 4.5m까지 자라는 落葉喬木

\* 分布地

韓國, 中國, 日本 등  
街路樹, 防火樹, 淨化木으로  
植栽



● 道花 : 백 일 홍

\* 學 名

부처꽃과의 落葉潤葉喬木

\* 分布地

韓國, 中國, 日本, 濠洲 등  
꽃이 秀麗하여 人家나 寺刹周邊  
의 觀賞樹로 널리 植栽

맑은 차 향기로운 세상

다례  
학당

# 설 예 원

- 차와 차도구 전시판매 · 녹차 시음장
- 차생활 예절 · 차문화 강좌

☎ 560-020

전주시 경원동 1가 128-15 전북예술회관 맞은편

☎ (0652) 83-0640

# 전주시민농악단

(까치마당)

단장 이복남

☎ (0652) 224-5186

호출기.012-655-5186